

#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LLP) 태국선교팀 보고서**

**2017. 1. 23 – 2. 3**

자료수집 및 보고서 정리: 백 수 림  
지도교수 종합 강평: 조 화 진, 박 문 식

# 목 차

1. 프로그램 개요
  2. 준비 내용
  3. 리더쉽 특강내용
  4. 재능학교 진행내용
  5. 방과 후 놀이 진행내용
  6. 선교지 현장방문 진행내용
  7. 재능학교 참가 학생 설문 결과
  8. 참가자/주임교사/부장교사 리포트
  9. 지도교수 리포트
  10. 현지 시설 분석
- 부록. 참고 자료 및 표

#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일정 및 방문지

일자	일정
1월 23일(월)	오전 05:30 한남대 상징탑 모임 오전 06:00 한남대 -> 인천공항(전세버스 이용) 오전 10:50 인천공항 출발(결항되어 지체됨) 오후 15:30 인천공항 출발 저녁 20:20 홍콩 경유하여 방콕 도착 저녁 22:00 방콕 호텔(노보텔)에서 취침
24일(화)	오전 06:30 기상및 세면, 조식 오전 08:00 방콕공항 도착 오전 10:00 방콕 출발 -> 치앙마이 도착 (송태우 2대 및 선교사님 차량) 치앙라이 메썬어이 센터로 이동 오후 오리엔테이션 학생들과 반 배정, 수업준비, 저녁에는 학습준비
25일(수)	영어, 한국어, 수학, 과학, 음악 5개 과목(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수업, 오후 4시 반부터 운동겸 휴식, 저녁에는 학습준비
26일(목)	영어, 한국어, 수학, 과학, 음악 5개 과목(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수업, 오후 4시 반부터 운동겸 휴식, 저녁에는 학습준비
27일(금)	영어, 한국어, 수학, 과학, 음악 5개 과목(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수업, 오후 4시 반부터 운동겸 휴식, 저녁에는 학습준비
28일(토)	호웨이 킬렉 마을로 이동, 마을 교회 페인트칠 봉사, 추도예배참석 여학생은 홈스테이 취침 남학생은 페인트칠한 교회에서 취침
29일(일)	호웨이 킬렉 마을 출발, 센터로 돌아옴 주일 예배 참석(기념 찬양) 새문안 교회 의료팀 선교 현장 방문
30일(월)	영어, 한국어, 수학, 과학, 음악 5개 과목(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수업, 오후 4시 반부터 운동겸 휴식, 저녁에는 학습준비
31일(화)	영어, 한국어, 수학, 과학, 음악 5개 과목(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수업 및 발표회 준비 재능 발표회 메썬어이 학생들, 한남대 학생들 및 교수님들과의 소감 나눔의 시간
2월 1일(수)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지역(마약박물관)등 문화탐방 치앙라이와 람퐁지역 문화탐방 특강 및 선교사님 강의
2일(목)	특강 및 선교사님 강의, 저녁 치앙마이 공항 도착
3일(금)	오전 6:35분 인천공항 도착 오전 08:00 인천공항 -> 한남대 (전세버스 이용)

--	--

## 2) 참여인원

박문식 교수님(기계공학과), 조화진 교수님(철학상담학과)과 자녀 1인,  
학부생 17명 (아래 리스트 참조)

이름	학과	학번
곽경호	기계공학	20130843
금연중	프랑스어문	20120223
김연주	철학상담	20140310
김한얼	건축공학	20123135
노진현	컴퓨터통신	20160733
박준	경영	20161259
백수림	수학교육	20150567
안희진	철학상담	20140309
유태의	기계공학	20123296
이희원	기계공학	20112748
정지혁	프랑스어문	20110278
채민우	기계공학	20160859
천승우	전자공학	20113533
최실하	회계	20161328
최예은	수학교육	20160582
표성민	컴퓨터통신	20160663
황지숙	기독교	20160371

총 20명 참가

## 3) 이동편 여정

- 한남대 -> 인천공항, 대형 전세버스(대원관광) 이용
- 인천 -> 홍콩경유 -> 방콕, Thai Airways TG609
- 방콕 -> 치앙마이, Thai Airways TG102 (항공사가 연결해 줌)
- 치앙마이 공항 -> 치앙라이 메썬어이 센터, 송태우 2대/선교사님 차량
- 메썬어이 센터 -> 미얀마/골든트라이앵글 -> 메썬어이 센터 송태우 2대/선교사님 차량

- 메썬어이 센터 -> 치앙마이 공항, 송태우 2대/선교사님 차량
- 치앙마이 -> 방콕, Thai Airways TG117
- 방콕 -> 인천, Thai Airways TG658
- 인천공항 -> 한남대, 대형 전세버스(대원관광) 이용

#### **4) 이동편 특이사항**

- 인천공항 : 탑승수속(단체 체크인 및 환전등) 지체로 승선 시각 놓칠 뻔 하였음
- 항공편 지체 : 인천 공항에서 기체 내의 결함이 생김, 5시간 정도 지연 후 재 승선
- 방콕 1박 : 치앙마이행 연결편 종료로 항공사 제공 공항인근 노보텔에서 1박
- 치앙마이 : 익일 아침 일찍 방콕 -> 치앙마이 항공 이동하여 람퐁센터 일정은 생략하고 바로 메썬어이 센터로 이동하여 나머지 일정에는 차질이 없었음

## 2. 준비내용

### 1) 방과 후 활동 계획 대비 실행

Fun 활동	계획	실행
25일(수)	남자)축구 여자)피구	남자)축구 여자)피구
26일(목)	막대풍선, 퍼즐	컴퓨터 조립 비즈, 봉숭아 물들이기
27일(금)	컴퓨터 조립 비즈 또는 팔찌	태권도
30일(월)	태권도(품세) 또는 축구	물풍선 게임
31일(화)	(예비)	발표회

### 2) 과목별 회의 및 준비사항

#### - 수학

- 1반 - 수직과 평행/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다각형의 넓이/퀴즈 및 Q&A
  - 2반 - 다각형의 넓이/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각기둥과 각뿔/퀴즈 및 Q&A
  - 3반 - 원기둥/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원뿔/퀴즈 및 Q&A
  - 4반 - 삼각형의 성질/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사각형의 성질/퀴즈 및 Q&A
  - 5반 - 닳음1/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닳음2/퀴즈 및 Q&A
- => 교사용 교재와 학생용 교재를 따로 준비하여 수업을 진행하려 했다.  
컴퍼스는 위험해 보여 각도기와 모눈종이를 이용한 작도만 하였다.

#### - 과학

- 1. 표면장력에 대해 설명 => 지퍼백, 연필
- 2. 태양계에 대해 설명 => 태양계 종이접기, 프린트물
- 3. 전기와 자기장의 대해 설명 => 구리선, AA건전지, 네오디뮴자석
- 4. 화학 주기율표 대해 설명 => 주기율표

## - 한글

1. 자기소개, 빙고
  2. 몸으로 말해요, 물건 맞추기,
  3. 등글게 등글게, 부채만들기
  4. 노래와 율동
- =>부채, 붓펜

## - 영어

1. 교재 제작(이름, 나이, 생일, 가격 묻고 답하기)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교육 내용을 회의하고, 교재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수준을 몰라서 결국 교재는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2. 게임 준비 (퍼즐, 영어 윷놀이 등)  
인터넷에서 수업내용과 관련된 퍼즐을 찾았고, 영어 윷놀이 판은 전지를 사서 직접 만들었다.
3. 현장에서의 준비(팝송, 워십, 연극)  
현장에서 본 아이들의 교육수준에 맞추어 팝송, 영어 워십 배우기를 준비했으며, 미리 준비해 간 영어 동화책을 이용해 영어 연극대본을 만들었다.

## - 음악

음악 교육 절차

1.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다.  
미리 아이들의 나이 및 일부 문화를 파악하고, 내가 가르치려는 악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알고 난후 수업을 준비한다.
2. 난이도 선정을 위해 미리 해보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어떤 악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지녔는지 파악하고자 미리 연습해보고 난이도 별로 숫자를 매겨 악보를 선정한다.

### 3) 전체 준비사항

여행자보험, 단체복장, 오카리나 등

### 4) 조직 및 업무분장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총괄	부장	이희원	총괄	체육부장	정지혁
	회계	천승우		여학생	안희진
	리포터	김한얼		카운터	박준
주임교사	수학	백수림	Fun 활동	풍선, 퍼즐	유태의
	과학	이희원		컴퓨터	금연중
	한글	금연중		태권도	표성민
	영어	안희진		비즈(팔찌)	최예은
	음악	채민우			
지도교수	조화진(철학상담)		지도교수	박문식(기계공학)	

### 5) 특화주제선정 : '재능학교' 및 '치앙라이에서 길을 묻다'

한남대 학생들의 재능을 메썬어이 학생들에게 기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태국 학생들은 그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가는 차원에서 '재능학교' 프로그램을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Fun 활동을 한남대 학생들의 리더십으로 이끌면서 메썬어이 학생들과 함께 편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재능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치앙라이 산족인 아카족의 호웨이 킬렉 마을, 미얀마 타 킬렉에 있는 고아기숙사,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치앙라이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찾고자 '치앙라이에서 길을 묻다'라는 표어를 정하고 기도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 3. 리더쉽 특강내용

#### 1) 새벽 경건회

1/25(수) - 민 14:26-35

여유롭게 사람이 걸어가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달동안 가도 충분히 가게 되는데, 원망(불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하심.

40년동안 10번 정도의 불평, 불만인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게 하심

=>나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

- ①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기
- ②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인지하기
- ③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기대하고 계심을 알기

1/26(목) - 막4:13-20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①15절(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

교회를 한 두번 방문한자. 구원의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뺏어감

②16-17절(돌 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자

=> 뿌리가 없다.(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다)

③18-19절(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물질적 욕심에 빠져있다.

세상적 유혹에 빠져있음.

④20절(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드리는 사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사람

=>①-③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신의 생각(감정)을 믿는 사람

이로써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내가 어떤 종류인지, 생각해보고 반성하자.

1/27(금) - 히4:12(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 ①밥도 시간을 정해놓고 먹듯이 말씀도 시간(아침에 몇분이든지)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하는게 중요하다.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다.  
하루의 일과를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아침에 주님께 물어보기

②매일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한다.

나의 삶에서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해야 한다.  
기도 또한 생활 습관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

(행10:1-8)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주시다.

③환경에 주목해야 한다(의견 일치 여부)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모임은 해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조연구하기

1/28(토)-<주님의 음성듣기-3>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①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마 19:21-22)

②세상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마 6:21)

③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창 3:1-4)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기

1/30(월)-롬11:36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혹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보내온 것이다,

1/31(화)-창25:29-34

우리가 말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2/1(수)-채민우의 경건회

①메썬워이 학생들 스스로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알기 바람

②스스로 당당해지길 바람(자신감을 갖기를 원함)

③당연한 것일지라도 의심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길 바람

2/2(목)-최예은의 경건회

## 2) 박문식 교수님 리더쉽 특강

- 다원주의 사회에서 거꾸로 그리스도인의 삶 (롬12:2)

- 종교다원주의, 윤리적상대주의, 황금만능주의와 그리스도인

### 3) 조화진 교수님 리더쉽 특강

- 행복한 삶을 위한 강점 발견
- 성장을 위한 관계의 조건

### 4) 김장원 선교사님 리더쉽 특강

Leadership-배의 선장이 되어 배를 영향력 있게 이끌어 가는 능력

목적이 즉 우리의 비전이 된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 살아가게 하셨나 고민해보기)

잠언:지혜의 서-반복적으로 읽기

'생명=시간'임을 알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막연하게 보내는 것) 이것 또한 죄이다.

비전의 능력,힘=>목적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살아있으려면 목적지, 즉 비전(주님이 주신 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비전이란, 우리를 모두 구원해주시는 것, 이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믿음으로 비전을 보고 나가야 하는데, 리더(비전을 이미 본 것처럼 이루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궁극적 목표: 사람 살리는 일, 남을 살려줄러니까 내가 더 살아날 수 밖에 없다.

### 5) 문화특강

1/25(수) - 태국 문화 강의(Siwa 선생님)

1/26(목) - 라후족 문화강의 및 민속 공연(라후족 학생들)

1/30(월) - 아카족 문화문화 및 민속 공연(아카족 학생들)

## 4. 재능학교 진행내용

### 1) 수학

1차와 3차에는 설명식 교수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심어주고 2차와 4차에는 재밌는 수학을 이용한 게임과 퀴즈를 하며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으나 중간에 수업이 취소되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의 넓이, 둘레길이를 1차때 공통으로 가르쳤다. 2차 수업 때는 할리갈리와 숫자빙고, '혼자왔습니다' 게임, 문제적 남자에서 나온 퀴즈들 등을 하였다. 마지막 3차 수업 때는 미리 준비해 간 투명 모눈종이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세 각을 재어보고 내합의 합이 180도인 것과 정삼각형 위에 사각형을 그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1/2$ 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 2) 과학

- 표면장력은 비닐봉지에 연필로 뚫어 물이 세지 않는 실험으로 설명함
- 태양계의 종이접기와 프린트물을 이용하여 필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전기와 자기장의 설명을 위해 구리선과 AA건전지 네오디뮴자석 실험을 하여 설명함.
- 화학 주기율표를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빙고게임을 통해 화학식 기호를 익숙하게 만듦.

### 3) 한글

- 자기소개를 작성하면서 직업, 숫자 등 다양한 어휘들을 익히고 발표를 통해 흥미를 유발함
- 단어들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어휘를 익히고, 사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단어를 익힘
- 우리나라 놀이 문화인 등글게 등글게를 통해서 노래를 익히며 이해하고 숫자에 대해 익숙하게 함. 노래를 통해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율동을 더해서 흥미를 유발함
- 한국전통 부채에 한국어로 써보면서 소원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생각하고 사용하게 함.

### 4) 영어

교재 파트마다 수업을 이끌어 갈 담당 선생님을 정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업은 주로 Dialog를 통해 표현을 배우고 영어 노래를 통해 익히는 형식이였다. 통역하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수업은 되도록 영어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팝송이나 워십, 연극 등은 어려운 단어 위주로 뜻을 전달 한 후 활동을 하도록 했다.

## 5) 음악

- 처음 수업 때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과목이어서 무리가 없었다. 미리 준비한 악보들을 펼치고 아이들이 음악에 대해 혹은 악보에 관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수업에 관여 했다.

- 수업이 끝난 후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각 반별로 메모해놓고 다음 수업 때 막힘없이 진행한다. 또한 아이들이 어떤 악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이 궁금한지 파악하고 다음 수업에 참고한다.

- 수업 중

수업 중 주임교사가 할 것은, 어제 메모한 것을 이행하고 '어떤 악보를 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준 뒤,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개인레슨을 각각이 해주는 것이다. 수업을 마치기 이전에 단체로 한번 씩 해보는 등, 개인별 릴레이를 해보는 등 MR에 맞추어 불러보는 식으로 수업의 질과 다양성을 높인다.

## 5. 방과 후 놀이 진행내용

### 1) PC 조립 워크숍



### 2) 비즈팔찌 및 봉숭아 물들이기-비즈, 낙시줄



### 3) 태권도 품세



### 4) 지붕제작공장 방문





5) 의료진료선교 현장 방문



6) 물풍선 게임





## 7) 달란트 시장



## 6. 선교지 현장방문 진행내용

### 1) 산족 마을 호웨이 킬렉 방문





2) 미얀마 타킬렉 고아기숙사 방문



3) 골든트라이앵글 마약박물관 방문



4) 치앙라이 나이트바자 방문



5) 치앙마이 파얏대학교 및 구시가지 방문



## 7. 재능학교 참가 태국 학생 설문 결과

교육 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적절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그램 계획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교과 수업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메썬어이 센터 학생은 총 40명으로, 모든 교과 및 방과 후 활동이 종료된 후, 센터 현지 선생님의 의해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내용, 교수방법의 적절성, 수업자료, 난이도, 방과 후 활동 만족도를 측정하는 5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과 가장 즐거웠던 방과 후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각 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 1)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17명(42.5%), "만족한다" 14명(35%), "보통이다" 9명(22.5%)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목에 있어 약 78%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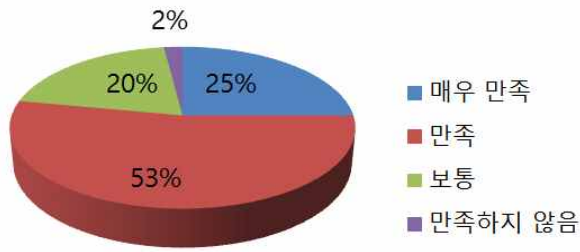
### 2) 수업(교수) 방법의 적절성

수업 방법의 경우, "매우 적절하다"로 응답한 학생이 10명(25%), "적절하다"가 21명(53%), "보통이다"가 8명(2.5%)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도 1명(2.5%)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수업 자료 준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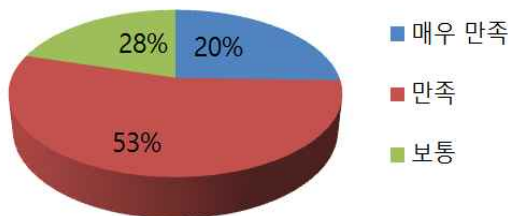
수업 자료 준비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자료 준비가 "매우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 수업 방법 적절성



학생이 8명(20%), “만족한다”가 21명(52.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11명(2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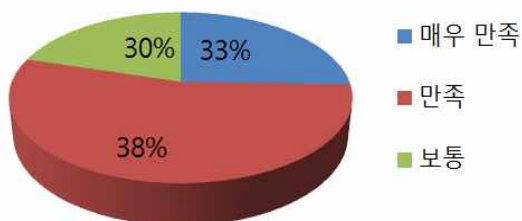
### 수업 자료 준비도



#### 4) 수업 난이도의 적절성

수업 난이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가 13명(33%), “만족한다”가 15명(37.8%), “보통이다”가 12명(30%)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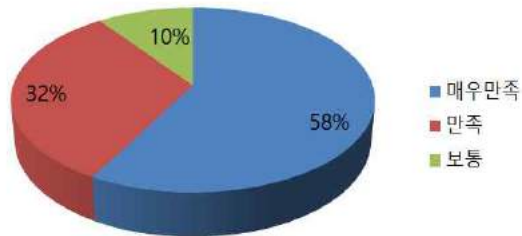
### 수업 난이도 적절성



#### 5) 방과 후 활동 만족도

방과 후 활동의 경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23명(57.5%)의 학생이

방과 후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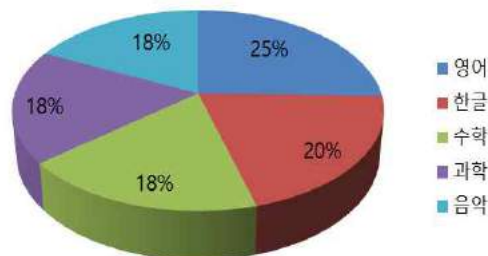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였고, 13명(32.5%)이 “만족한다”로 응답하여 90%의 학생이 방과 후 활동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과목

한글, 영어, 수학, 과학, 음악의 총 5개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어가 10명(25%)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한글 8명(20%), 수학, 과학, 음악은 모두 7명씩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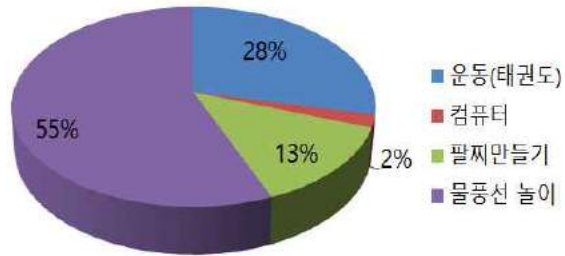
가장 도움 받은 교과목



#### 7) 가장 즐거웠던 방과 후 활동

운동(태권도 포함), 컴퓨터, 팔찌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물풍선놀이 등 방과 후 활동에 대해 가장 즐거웠던 활동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22명(55%)의 학생이 물풍선 놀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태권도 포함) 11명(27.5), 팔찌 만들기 5명(12.5%), 컴퓨터 1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즐거웠던 방과 후 활동





## 8. 참가자/주임교사/부장교사 리포트

성명 : 이희원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부장교사

2017.1.23.~2.3

교육 프로그램
<p>과학: 표면장력, 태양계등 실험과 놀이로 교육                      수학: 계산, 다각형, 기동등 할리갈리를 이용하여 교육                      영어: 교재 재작을 만들어 퍼즐, 영어 윗놀이, 팝송, 워십등으로 교육                      음악: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악보를 보는 법과 오카리나 교육                      한글: 자기소개, 빙고, 노래와 율동, 부채 만들기, 물건 맞추기로 교육</p>
방과 후 프로그램
<p>Fun 활동을 통하여 컴퓨터조립, 음악(피아노)수업, 축구, 태권도, 물풍선 놀이 등을 통하여 아이들과 친숙함이 강해지고 아이들에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함.</p>
과목별 총평
<p>과학: 아이들이 예상 의외로 많은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으며 호응적으로 진행하였음                      영어: 아이들의 난이도 수준이 분별하기 힘들었으며 영어 혹은 교육 쪽의 전공자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함                      수학: 수학을 어려워하여 가르칠려는 접근보다는 놀이활동으로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고 함                      음악: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클래식위주보다 코드악보를 다룰 줄 아는 음악선생님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어 보인다고 함                      한글: 노래와 율동을 통해 직업, 숫자, 다양한 어휘를 익히고 놀이형식으로 이루지면서 보상을 줌으로써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함.</p>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p>태국을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의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일정계획도 수정을 하여 모든 과목 선생님들로부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하는 쪽보다는 놀이활동을 좋아하여 수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개선하여 미리 알고 간다면 이번보다 더 완벽하게 잘 다녀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p>
결론
<p>과학, 수학, 영어, 한글, 음악인 과목을 꾸려 체계적으로 수업한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며 Fun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더 재미있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웠다. Fun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태권도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느꼈으며 다음번에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간다면 최고의 활동을 뽑힐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같다.</p>

성명 : 백 수 림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과목 : 수 학

2017.1.23.~2.3

**교육 준비내용**

- 1반 - 수직과 평행/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다각형의 넓이/퀴즈 및 Q&A
- 2반 - 다각형의 넓이/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각기둥과 각뿔/퀴즈 및 Q&A
- 3반 - 원기둥/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원뿔/퀴즈 및 Q&A
- 4반 - 삼각형의 성질/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사각형의 성질/퀴즈 및 Q&A
- 5반 - 닳음1/할리갈리를 이용한 빠른 계산/닳음2/퀴즈 및 Q&A

**교육 시행 내용 및 교수법**

1차와 3차에는 설명식 교수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심어주고 2차와 4차에는 재밌는 수학을 이용한 게임과 퀴즈를 하며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으나 중간에 수업이 취소되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의 넓이, 둘레길이를 1차때 공통으로 가르쳤다. 2차 수업때는 할리갈리와 숫자빙고, '혼자왔습니다'게임, 문제적남자에서 나온 퀴즈들 등을 하였다. 마지막 3차 수업때는 미리 준비해 간 투명 모눈종이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세 각을 재어보고 내합의 합이 180도인 것과 정삼각형 위에 사각형을 그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1/2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학생 호응도**

- 1차 수업때는 설명식 교수방법을 사용했는데 애들의 수준 차이가 심해서 어떤 아이들은 시시해 하고 어떤 애들은 어려워 보였다.
- 2차 수업때는 함께 할리갈리와 게임들을 할때 스티커라는 좋은 자극제가 있고 함께 하는 거여서 참여도와 호응도가 좋았다.
- 3차 수업때는 설명식 교수방법이었지만, 애들이 직접 모눈종이에 그리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참여도가 좋았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애들이 배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단원을 수업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태국의 수학교과교육과정을 한 번 알아봐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목 결론**

수학과 같은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중심으로 가야할 지 혹은 함께 시간 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 정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성명 : 이희원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과목 : 과학

2017.1.23.~2.3

### 교육 준비내용

1. 표면장력에 대해 설명
2. 태양계에 대해 설명
3. 전기와 자기장의 대해 설명
4. 화학 주기율표 대해 설명

### 교육 시행 내용 및 교수법

1. 표면장력은 비닐봉지에 연필로 뚫어 물이 세지않는 실험으로 설명함.
2. 태양계의 종이접기와 프린트물을 이용하여 필기 할수 있도록 유도함
3. 전기와 자기장의 설명을 위해 구리선과 AA건전지 네오디뮴자석 실험을 하여 설명함.
4. 화학 주기율표를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빙고게임을 통해 화학식기호를 익숙하게 만듦.

### 학생 호응도

표면장력, 태양계, 전기와 자기장, 화학 주기율표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의 상식이 넓어 질수 있었고 과학의 흥미를 느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지 동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하늘과 별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렴한 망원경을 준비하여 학교에 기부를 한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재미있고 흥미가 보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화학실험도 하는 것도 기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목 결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 반응 보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보였으며 많은 질문과 답이 오고갔었습니다. 과목의 해당 내용 이외에도 다른 파트의 과학질문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 여러 파트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앞으로 기대가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명 : 금연중  
과목 : 한국어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2017.1.23.~2.3

<b>교육 준비내용</b>
자기소개, 빙고 몸으로 말해요, 물건 맞추기, 등글게 등글게, 부채만들기 노래와 율동
<b>교육 시행 내용 및 교수법</b>
자기소개를 작성하면서 직업, 숫자 등 다양한 어휘들을 익히고 발표를 통해 흥미를 유발함 단어들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어휘를 익히고, 사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단어를 익힘. 우리나라 놀이 문화인 등글게 등글게를 통해서 노래를 익히며 이해하고 숫자에 대해 익숙하게 함. 노래를 통해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율동을 더해서 흥미를 유발함 한국전통 부채에 한국어로 써보면서 소원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생각하고 사용하게 함.
<b>학생 호응도</b>
대부분이 놀이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른 보상(스티커, 간식)이 있어서 호응이 매우 좋았음.
<b>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b>
아이들에게 지식전달보단 놀이위주가 강해서 아이들의 호응위주로만 방향을 잡았던 일정이었음. 너무 흥미위주의 수업내용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b>과목 결론</b>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어울림에 치우쳐있어 배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 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성공적이었음.

성명 : 안희진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과목 : 영어

2017.1.23.~2.3

**교육 준비내용**

**1. 교재 제작(이름, 나이, 생일, 가격 묻고 답하기)**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교육 내용을 회의하고, 교재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수준을 몰라서 결국 교재는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2. 게임 준비 (퍼즐, 영어 윷놀이 등)**

인터넷에서 수업내용과 관련된 퍼즐을 찾았고, 영어 윷놀이 판은 전지를 사서 직접 만들었다.

**3. 현장에서의 준비(팝송, 워십, 연극)**

현장에서 본 아이들의 교육수준에 맞추어 팝송, 영어 워십 배우기를 준비했으며, 미리 준비해 간 영어 동화책을 이용해 영어 연극대본을 만들었다.

**교육 시행 내용 및 교수법**

교재 파트마다 수업을 이끌어 갈 담당 선생님을 정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서포트 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업은 주로 Dialog를 통해 표현을 배우고 영어 노래를 통해 익히는 형식이였다. 통역하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수업은 되도록 영어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팝송이나 워십, 연극 등은 어려운 단어 위주로 뜻을 전달 한 후 활동을 하도록 했다.

**학생 호응도**

학년이 어린 학생들은 잘 따라와 주었지만 높은 학년 학생들은 이미 모두 배운 내용을 따라해 주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팝송과 연극을 급하게 추가해 수업에 활용했으나, 반 내에서도 수준이 모두 달라서 팝송과 연극이 어려워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가장 호응이 좋았을 때는 직접 몸으로 하는 게임이였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아이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매 수업마다 넣어서 참여율이 높이는 것이 좋겠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업 내용은 뭐가 좋을지 연구가 필요하다. 너무 쉬운 것은 학생들이 재미없게 반복할 수 있고, 너무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하고 싶지 않아한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관광지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실생활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목 결론**

사실 영어반 선생님들이 철학, 상담학, 건축공학 전공이어서 영어에 특출하지 못했다. 영어 교육쪽에 관련된 조력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가기 전 열심히 준비한 것들 보다는 혹시 몰라서 가져간 아이디어와 물건들이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한 가지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기 보다는 체계성과 유동성이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다.

성명 : 채 민우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과목 : 음악

2017.1.23.~2.3

**교육 준비내용**

음악 교육 절차

1.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다.

미리 아이들의 나이 및 일부 문화를 파악하고, 내가 가르치려는 악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알고 난후 수업을 준비한다.

2. 난이도 선정을 위해 미리 해보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어떤 악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지녔는지 파악하고자 미리 연습해보고 난이도 별로 숫자를 매겨 악보를 선정한다.

**교육 시행 내용 및 교수법**

1. 처음 수업 때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과목이어서 무리가 없었다. 미리 준비한 악보들을 펼치고 아이들이 음악에 대해 혹은 악보에 관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수업에 관여 했다.

2. 수업이 끝난 후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각 반별로 메모해놓고 다음 수업 때 막힘없이 진행한다. 또한 아이들이 어떤 악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이 궁금한지 파악하고 다음 수업에 참고한다.

3. 수업 중

수업 중 주임교사가 할 것은, 어제 메모한 것을 이행하고 '어떤 악보를 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준 뒤,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개인레슨을 각각이 해주는 것이다. 수업을 마치기 이전에 단체로 한번 씩 해보는 등, 개인별 릴레이를 해보는 등 MR에 맞추어 불러보는 식으로 수업의 질과 다양성을 높인다.

**학생 호응도**

음악에 대해서는 모두들 참여도가 높고 또한 흥미가 많았다. 일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내 소리가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각별히 개인레슨을 해주면서 실력을 증진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음악에 대해 더 전문지식이 있거나 더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안다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아이들이 기독교학교에 다녀서인지 찬 양곡 악보가 많은데 대부분 코드로 반주가 이루어져 코드를 아는 사람이 음악교사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아 보인다.

**과목 결론**

음악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술이나 공학 계열 과목을 추가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은 당장 이행 가능한 이론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데, 이를 파고들어서 미리 어떤 행동을 보여준 뒤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론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성명 : 금연중

린트 리더쉽 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프랑스어문학과 학년: 3학년

2017.1.23.~2.3

<b>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b>
<p>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발전한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살아 가는지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p>
<b>가장 힘들었던 점</b>
<p>한국에서 준비할 때, 현지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이 차질이 많았습니다.</p> <p>그래서 현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짜게 되었고, 그 부분들로 인해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졌고 학생들에게도 허술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통역에 너무 의지하여 교육이 진행 되다보니 수업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p>
<b>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b>
<p>저는 많은 자들이 불편한 생활 속에서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만나보니 불편함을 느끼고 불평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오히려 없음으로 행복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과 평행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p>
<b>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b>
<p>현지의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계획을 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준 별로 수업 내용을 정하고, 최대한 통역 도움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부교재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된다고 느꼈습니다.</p>
<b>나의 결론</b>
<p>새벽부터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산에서 돼지, 닭, 염소와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산에서 내려와 교육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제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p>

성명 : 천승우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전자공학과 학년: 4학년(예정)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베트남 단기선교 캄보디아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해서 많은 선교를 나가보았다. 나는 각각의 나라 단기선교에서 다른 것들을 느끼고 보고 왔다. 나는 이번 태국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을 통하여 앞에서 다녀왔던 단기선교들과는 다른 학교에서 파송되어 가는 교육단기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

나는 태국 린튼 리더쉽 동안 제일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음식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한국에서도 카레같은 향이 강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는데 태국에서는 카레보다 훨씬 향이 강한 음식들 특히 고수가 들어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다. 물론 향이 강하지 않았던 것들은 맛있었고 잘 먹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태국 린튼리더쉽 첫째날부터 마지막 날 까지 항상 감동이 함께 했다. 처음 일정과는 달랐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도착했고 아이들을 처음만나서 수업할 때 또 주일 예배때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불러 줬을 때 참 감동을 받았다. 교훈으로는 본인은 쉽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법을 잘 못한다. 그런데 태국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교훈이 되었던 것 같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향후 발전은 무수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태국 린튼리더쉽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그랬는지 프로그램을 준비할 기간도 기도할 시간들도 부족했던 것 같다.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 팀원들과 함께 모여 교체하여 팀워크를 키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태국 아이들을 위한 춤이나 노래등을 준비하여 문화공연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나의 결론**

나의 결론은 나는 이번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얻었다. 일단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 미얀마 땅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무나 가슴 벅찼던 12일의 기간이었던 것 같다. 또 린튼리더쉽을 함께 갔던 팀원들 한명 한명과 교체하며 같이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성명 : 곽경호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기계공학과

학년: 2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처음에는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저는 봉사적인 것을 떠나 이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알려 주셨을 때 너무나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10일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스케줄일 것이라 생각을 했고 봉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린다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한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을 얻어서 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것은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도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 왔으면 하는 아쉬움과 중반으로 갈수록 아이들과의 벽이 사라지고 가까워지며 그때부터 아이들과 헤어질 아쉬움 그리고 집에 갈 때 즈음 돼서는 저희 팀 전체가 아이들과 헤어질 상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있기에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확신에 차서 "꼭 다시 올게" 라고 말을 못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치앙라이에서 받은 감동은 진짜였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 학생들이 주는 따뜻한 마음을 통한 순수한 감동과 센터 선교사 단기, 현지 선교사 분들이 배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감동 그 자체. 봉사를 하러간 팀으로서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으면 생활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과분한 사랑은 받으면서 앞으로 나도 사랑을 많이 배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게 바탕이 되어 저의 비전을 향한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리더쉽의 취지에 완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본인 반의 수업을 준비하고 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1기는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에 가서 계획을 변경하고 급하게 수업에 임해야 했습니다. 허나 다음 2기부터는 1더 확실한 정보가 있기에 더욱 완벽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결론**

리더쉽 특강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각자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일 것이고, 누군가는 명예 일 것이고, 건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자기 마음속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은 결국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것부터 찾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인 듯 싶습니다.

성명 : 김연주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철학상담학과

학년 : 2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태국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태국 땅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태국팀을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함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 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사랑함을 회복하고, 사랑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환경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선교봉사를 하러 가서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했다.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으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과의 헤어짐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발걸음을 떼는 것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섬기고 주려 간 것인데 오히려 내가 그 아이들로 부터 받고 얻어 온 것들이 훨씬 많은 시간이었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경계함을 가지거나 사랑을 주는데 마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먼저 다가오고 사랑을 부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랑' 한 단어로 내가 이 선교 기간 동안 배운 것, 받은 것, 경험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다. 수업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의 학업 수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센터에 도착해보니까 우리가 받은 정보가 잘못되어서 현지에서 급하게 수업을 수정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다음번에는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아쉬웠던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다. 워십, 드라마, 스킷, 찬양, 다양한 활동 등 다음 번에 갈 때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가지 분야를 준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결론**

내가 태국 땅으로 가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기대들,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의 길을 찾고 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랑' 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마음과 중보함 그리고 사랑함의 대한 귀한 마음이다.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 팀에 태국 땅에 우리의 모든 시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성명 : 김한얼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건축공학과

학년: 4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처음에 곽노열 교수님께 전해 들었을 당시에는 리더쉽 프로그램 보다 선교에 더 무게추가 있었던 지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기대되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해외로 나가 제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 큰 경험이 될거 같아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그곳의 날씨에 적응하는 것과 언제나 찬물로 샤워 하는 것. 편하지 않은 잠자리 등이었는데 이런 문제는 적응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만 힘들었을 뿐 적응한 이후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지 못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특성상 나 또한 영어를 크게 잘하지 못하는 데 그것을 또 설명하자니 학생들이 한글을 잘 몰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서 정말 크게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언어가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센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 학생들의 생활을 보면서 나 자신이 개인적인 욕심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다시금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이번 선교 때 많이 아쉬웠던 것은 준비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교팀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학생들의 수준을 모르다 보니 교재를 만드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교 때는 학생들의 수준도 알고 그곳의 상황도 알고 있으니 이 같은 문제는 잘 해결 될거 같습니다. 또한 다음 번에는 교육 봉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그곳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의 결론**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때도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가고 싶습니다. 메수어이 선교 센터는 진짜 한남대가 아니었으면 생길 수 없는 그런 선교 센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공동체 모임도 홍보하고 메수어이 선교센터도 같이 홍보하여 이 선교 활동이 더욱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프로그램에 가장 기대했던 점은 새로운 사람들과 낯선 아이들과 교류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팀원들은 서로를 더 아끼게 될 것이고 태국 학생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교류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들이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은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부분들로 느껴집니다. 정말 힘들었던 점은 몇몇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통역사 없이 대화를 통한 교류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내고나서는 몇몇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 속 감정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아이들이 진정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것 같아서 기독교사관학교에 머무는 동안 소소한 감동을 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형 동생사이로 지낼 나이차 임에도 선생님으로 대해 주고 수업에도 즐겁게 임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아이들의 삶에 임하는 자세나 고운 마음씨들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얀마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고 선교사라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김장원 선교사님의 리더십 특강은 저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이번에 과학반 수업을 진행하면서, 재밌는 과학실험들을 많이 준비해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과학이론은 현지 교사님께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험80 이론 20정도의 비중으로 수업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이라면 상기 시킬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고,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밌는 실험을 많이 준비할 수 없었던 데에는 아이디어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걱정되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실험과 활동을 준비했더니 아이들의 흥미를 많이 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과학반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주어 그곳에서 구하지 못하는 교구들을 준비하여 좀 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수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어릴 적 그랬듯 이곳 아이들은 네오디뮴 자석을 가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놀이 시간을 좋아했는데, 이는 그저 물을 가지고 놀아서가 아니라 팀으로 게임하는, 그 형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런 팀 활동을 많이 만들어서 수업에서만 함께하는 학생들이 다가오기 어려운 교사가 아니라 운동이나 게임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론**

저는 기독교사관학교에 머무는 동안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고,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부족했던 점이 너무 많았고, 그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성명 : 박준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경영학과

학년: 1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으로 태국을 간다고 들었을 당시엔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 자신이 기대했던 점보다는 주변에서 이야기 들었던 간접적인 경험들에 비추어서 기대를 하게 되었다. 정말 즐거운 아이들과의 시간, 공부, 활동 등과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산죽마을 방문, 태국땅에서 임재하시고 타국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기대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떤 것을 여러 날 동안 함께해보는 것이 처음이어서 공동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부족했던 점들이 몇가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었다고 할만한 부분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아 준비해갔던 것들을 매시간 회의를 통해서 수정해서 바로 다음날 수업을 해야 했던 점들이 즐거웠지만 동시에 힘들다면 힘들었다. 또한 정든 아이들과 작별을 고한다는 것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들었던 것 같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한국에서 새벽예배를 매일 나간다는 것은 나이를 어느 정도 드신 분들과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젊은 청,장년층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장 편히 지내고 싶어하는 나이인 10대 때 새벽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첫만남부터 몇칠간을 함께하면 느낀것인데, 정말 기독교학교의 아이들은 우리들과는 뭔가 궤를 달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순수한 마음을 품고있었고, 그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고 교육에 있어서 조금 늦을 뿐이지 그들 모두가 이미 큰 사람이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 한사람 들이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본인이 규칙에 있어서 잘 지켰다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선교를 갔던지 봉사활동을 갔던지 간에 우리는 선생님으로 갔는데 아이들이 보기에 현지인 분들이 보기에 게임을 하러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여졌을지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취침시간 이후면 적당히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는 나만의 착각에 빠질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교육해주는 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결론**

학교에서 우리를 해외로 장학금 까지 쥐가면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역시 이유 가운데 하나겠지만 진짜 이유는 시야를 넓히고 오라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은 충분히 좁았던 나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넓혀주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

성명 : 백 수 림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수학교육과

학년: 2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수학교육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학을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또한 아이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정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가장 힘들었던 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서 만족하며 지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태국 전통의 향신료?인 고수의 향이 나의 입맛을 떨어놓을지 몰랐다.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적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바지에는 괜찮아 졌다.  
또 둘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아팠는데 그게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였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마지막에 메수위이를 떠날 때쯤 우리 팀원들이 많이 우는 모습을 봤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고 울지 않는 모습이 떠나 보내는 것이 익숙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아이들이 매번 인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다.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줘서 같이 잘 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감동을 받았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fun time 때 애들에게 광고를 해서 첫날부터 함께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너무 남자는 축구를 하고 여자는 배구를 따로 하는 것이 아쉬웠다. 함께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국말을 좀 더 입에 붙여 놓거나 일정표같은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미리 준비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결론**

준비한 것 없이 가서 아쉬운 일들이 많았는데, 사랑과 내 지식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아이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오면서, 무조건 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받아올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  
원래 이 선교를 갈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예 해외에 나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로 다녀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준비된 자만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는 자까지 쓰시는 것 같다. 이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 된 것 같다.

성명 : 안희진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철학상담학과 학년: 3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선교봉사활동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팀원들도 모두 선교에 뜻이 있는 기독교인들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팀원들 모두와 함께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기대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첫날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둘째 날 부터는 모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 후로는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점이나, 부족한 선생님들의 수업에 열심히 따라와 준 점 등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다. 그리고 메썬어이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받은 섬김에 감사했다. 무엇보다 산속에서 하룻밤 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린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교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준비하는 시간이나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그곳에 전해준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갈 때는 이번에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오랜 시간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무언극이나 워십을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다.

**나의 결론**

이번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은 나에게 정말 좋은 추억과 교훈을 많이 안겨주었다.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후배들과 메썬어이 학생들에게 좋은 인연의 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곳에서 얻은 좋은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성명 : 유태의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기계공학과 학년: 2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수학반 일원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많은 모임을 가졌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착실히 준비했다. 수학적 내용과 퀴즈의 접목, 보드게임 등 그 아이들의 나이 대에 맞는 수준을 준비했고 빨리 가서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또,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한다 해서 같이 운동할 생각이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또,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서 인연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 생각에 정말 설렘과 기대가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걱정이 많았다. 어떻게 친해질까? 왜냐하면 첫 수업부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준비해 간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우니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아이들이 힘들어 했고 우리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빨리 친해지자는 마음에 이름을 외우자는 생각을 했고, 수업할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수업이 재미있어지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니 아이들이 좋아했고 수업도 딱딱한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으로 대체하니 우리들과 아이들의 유대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태국 아이들의 나이 대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벌써 그 학생에게 필요한 수준보다 많은 것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좁아진다. 하지만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 영어 등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았지만 창의력은 훨씬 뛰어났다. 정말 놀란 것이 우리는 과학 현상을 책에서 보기 때문에 생각을 않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궁금해 했고 질문을 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을 하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태국 학생들은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극단적인 예만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태국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충분히 왜 별이 있고 하늘을 보면 별이 왜 항상 그 자리에 박혀 있는지 궁금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놀랐고 본받고 싶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우리는 선생님으로 갔지만 오히려 우리가 학생이었고 치앙라이에 길을 물으러 갔지만 오히려 태국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한국에는 어떤 길이 있냐고. 첫 번째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학생들과 우리는 선생들과 제자가 아닌 친구였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제자였다.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러한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을 알리고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활동, 창의력의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해야 하고 그 전에 많은 기도모임을 갖고 많이 모여서 충분한 준비와 선생님들 간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결론**

2주 남짓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태국에 가서 아이들과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아이들과 친해지고 좋은 추억과 인연을 만들었던 것 같다. 첫날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많아서 잘 갈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은 같이 간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다. 낯선 땅에 낯선 음식, 낯선 문화를 접하고 2주 남짓의 시간 동안 태국에서 지내고 별 탈 없이 무사히 한국에 온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성명 : 이희원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기계공학과

학년:3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개인적으로 표성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태권도가 가장 인상이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무에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권도를 다른 것보다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흥미를 가지며 잘하는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국봉사를 간다면 태권도 프로그램은 꼭 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더 기대이상으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부장이라는 직책과 과학 주임교사를 동시에 맡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수학, 과학 등 과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와 fun time에서 물 풍선 만들기, 컴퓨터 관리, 행사 진행, 제비뽑기 등 많은 것을 신경쓰다보니 여러 일들이 헛갈리고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대를 주어서 좋았습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한국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가지며 태국 아이들에게 해당 과목을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를 뽑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하며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태국을 출발하기 전에 일정타임과 태국현지에서 받은 일정타임이 잘 맞지 않아서 과목의 범위를 재조정했었던 점과 난이도를 잘 몰랐던 부분에서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이러한 점을 정확히 캐치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지금 갔을 때보다 더 좋은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결론**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을 한남대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많은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며 그만큼 많은 한남대 학생도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인생 최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줄 것입니다.

성명 : 정지혁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프랑스어문학과 학년: 4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감과 봉사활동을 통한 리더쉽 고양.

**가장 힘들었던 점**

한국과는 다른 날씨와 언어, 문화의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저는 스스로 한국에서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리더쉽 캠프를 통해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 추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사실 이번 리더쉽프로그램 1회는 기존에 준비된 자료나 양식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짧은 준비기간이 이를 더 악화 시켰다. 앞으로는 먼저 프로그램을 떠난 선배들과 새롭게 떠나는 후배들과의 친목시간을 가지거나 현지 선생님을 초빙하여 강의를 하거나 하여 현지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프로그램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의 결론**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현지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프로그램은 절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행과정에서 서로간의 친목도목도 프로그램 준비 과정 속에 있었으면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리더쉽을 배울 수 있었다.

성명 : 채민우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기계공학과      학년: 1학년

2017.1.23.~2.3

<b>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b>
<p>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입소문을 통해 듣게 된 아이들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 최대한 아이들 나이에 걸맞게 수업내용을 짜보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긴장이 들었습니다. 재능기부 및 교육하는 사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의미를 다지게 되니, 태국 자체 관광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려 더 많이, 더 좋은걸 알려 줘야지 하는 마음에 긴장과 걱정만 가득했습니다.</p>
<b>가장 힘들었던 점</b>
<p>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상한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마음가짐에서 봉사와 교육, 기부의 목적으로 갔는데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물건을 살 때 마다 '너만 하면 우리가 눈치 보이지 않나'는 눈빛이 사사건건 들어왔습니다. 또한 남들의 그런 눈치를 주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질 때 마다 제가 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한 사례로 아이들이 일어서서 먹을 때 제일먼저 일어섰고 다른 일행도 다 같이 일어섰는데, 슬슬 눈치를 보더니 당연한 것 이라는 등 얘기하면서 하나 둘 앉을 때 상당히 불편했고 창피했습니다. 이윽고 '민우 뭐라고 좀 해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고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 계속 서서 밥을 먹다가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눈치들과 그릇된 행동을 알지 못하는 일부 행동들이 태국 리더쉽 생활 중 가장 힘들었습니다.</p>
<b>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b>
<p>7일간의 교육 일정을 보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여러 번 꺾였겠지만, 이렇게 짧게 오갈 때 너무 많은 정을 붙이면 되려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그리 좋지 않은 교육을 심어 줄까봐 정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마지막 교육날 밤에 발표회에서, 비록 제 이름은 들렸지만 저를 위해 A4용지에 이름을 적어서 흔들어 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할 때 사진을 찍기 위해 5학년의 부야를 찾고 있었는데 사진찍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반에서 울음을 터친 것을 봤습니다. 추후에 이유를 알려주었는데, 마지막 이별 날에 제 얼굴을 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혼자 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화진 교수님의 강의시간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나'는 말이 기억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나의 소중함을 느꼈다" 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저는 다시 저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어디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심어 줬습니다. 항상 이별에 앞서 마음준비를 하고 이별이 닥쳤을 때 감동이나 눈물한번 흘려본 적 없었는데, 이번 해외봉사 이후 인천공항에 갈 때 아이들이 준 선물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소리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p>
<b>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b>
<p>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 리더쉽을 담은 봉사에서 아이들에게 한 치 부끄럼 없는 행동과 말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잠깐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2. 관광이 일부 목적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당당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ex) 태국 린튼 리더쉽 프로그램 및 관광</li> <li>3. 가기 전 어떤 점이 부족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알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미리 연락이 닿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선교사님들의 의견 수용을 할지 안할지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ol>
<b>나의 결론</b>
<p>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는데, 시설도 상당히 좋고 아이들도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들 착했습니다. '어떤 봉사단체는 평판이 좋아서 우리 지역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봉사단체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어떤 곳이 봉사를 할 때 정말 좋고, 보람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외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외부에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태국에 갈 때 별로라는 동의 유언비어는 저희 린튼 리더쉽 봉사 팀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런 '유언비어다.' 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봉사단체가 어디로 해외봉사를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한다면 우리 리더쉽 단체에서 이 지역을 적극 추천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말 꼭 지키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잊기 전에 2월 말에 치앙마이에 7일간 머무르고 오려고 합니다. 비록 임시교사였지만 아이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것이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아주 짧지만 한때의 교사로서 부끄러움 없는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p>

성명 : 최실하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회계학과

학년: 1학년

2017.1.23.~2.3

###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행이 될 줄 알았다.

### 가장 힘들었던 점

현지 음식의 향신료가 강해 입에 맞지 않았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먹기 힘들 정도였지만 먹다보니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다.

###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메썬어이 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동안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행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통해 내가 다시금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준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기도로 더 준비해야 함을 느꼈다.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놀이들을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나의 결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아이들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준 것 보다 아이들에게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 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성명 : 최예은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수학교육과

학년: 1학년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사실 내겐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교회를 못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서서히 멀어져가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겠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선교를 가게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때문에 나 자신은 부끄럽고 숨고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이곳에 가면 분명히 무언가는 얻어올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는 첫번째 사람들이다보니 계획도 없었고 준비도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채로 갈바엔 가지 않는게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다보니 나도 불안하고 모든게 불안했다. 그점이 참 힘들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우리가 이렇게 준비도 못하고 훈련되어지지도 못한채로 선교를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시고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무엇보다 '나는 수학을 가르쳐줄수 있고 피아노도 칠 수 있으니까 그 재능을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던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에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물론 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후에는 이제 어느정도 정보와 자료도 있으니 이를 통해 더욱 준비되어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팀원들끼리도 미리 친해지고 훈련을 한 후에 갔으면 좋겠고, 그곳에 가기 전은 물론 가서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많이 함으로써 봉사활동보다는 선교로써 더욱 쓰임받고 왔으면 좋겠다.

**나의 결론**

가서 참 많은 것을 얻었고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확실히 티가 났던 것 같다. 다음번에 가게 되면 나 스스로도 더욱 준비하고 기도하여 가고 싶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명 : 표성민

린트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학년: 1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같이 린트리더쉽프로그램을 가는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점은 채워줄 것이라는 것. 통역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너무 어린 학생들은 아니라서 수업에 잘 참여해줄 것 이라고 생각한 것. 선교지이기 때문에 태국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 약간의 관광.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가장 힘들었던 점**

향신료들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 하고 싶은 말은 서로 많았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는 것. 정이든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고 보러가기 어렵다는 점.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아이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려 갔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온 것 같다. 먹을 것을 주면 혼자먹지 않고 나눠먹는 아이들. 밝은 웃음과 활기찬 모습과 열띤 수업참여로 피곤하지 않게 힘을 주는 아이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학생들과 한번의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된 교류가 이어져 나가야한다.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간단한 일상생활용 태국어를 배워갔으면함.  
1주일정도 학생들과 지냈는데 짧은 것 같다. 아이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면 더 많이 한국어를 사용해야하는데 다녀간 봉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쉽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휴대폰, 컴퓨터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이 불안정해 자주 끊긴다.

**나의 결론**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환경에 맞는 사랑을 베푸신다. 매우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으며 꼭 다시 가고 싶다.  
가르치려갔지만 배워온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린트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은 계속되어야한다.

성명 : 황지숙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팀

학과 : 기독교학과

학년: 1

2017.1.23.~2.3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점**

저는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지식 축적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과정에 충실하며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태국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교육봉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갑작스레 바뀐 교사직분에 제대로 준비 못했던 모든 것들이 죄책감과 스트레스,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던 계기 같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탓에 수업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모든 계획은 주임교사가 짚기에 뒷바라지만 해야 했고 그 전 교육과목 때 빛을 바랐던 제 아이디어들을 다 쓰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감동 및 교훈을 받은 점**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면 당장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해야 할 것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하고 살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태국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같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인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향후 발전 및 개선할 점**

교육방면에서 가르칠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지 열심히 하는 순수하고 보석 같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마음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하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방면에 있어 지원해주는 것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결론**

살아온 가치관과 모든 문화들이 달랐던 사람들을 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우는 가치들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다가 그들의 삶의 방식과 멋진 가치관을 배우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 9. 지도교수 리포트

### 1) 교육 프로그램(조화진 교수님)

태국 리더십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인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영역별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한글, 수학, 과학, 영어, 음악의 5개의 주요 교과목을 선정하고 과목별 수업을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업 내용의 만족도가 78%로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영어와 한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 교과목에 걸쳐 비교적 고른 비율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운동(태권도, 축구 등), 컴퓨터 조립, 팔찌만들기, 물풍선 놀이의 만족도는 교과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90%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학생 간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 형성이 교과 프로그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교과목의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 현지 학생들의 학력 평가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내에서도 학생별로 수준차가 다양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과목별로도 다르게 나타나 난이도 조정과 내용 선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지 교사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각 과목별로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학생들이 관심있는 내용(예, 자연현상, 현지 혹은 한국 문화)을 모두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지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수업을 위해 다양한 수업 자료와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교과목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게임, 만들기, 실습 등을 통한 적극적 상호작용이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이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각 교과 내용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 및 수업 자료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통역을 활용한 강의식 설명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내용 전달의 실패나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도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언어 위주가 아닌 이미지를 활용한 정서적 측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태도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사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효과 증진에 있어 스티커를 활용한 강화 전략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교사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실시되었던 발표회의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활발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다지는 기회가 되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매 수업 시간마다 간략한 평가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와 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풍선 터뜨리기 활동과 태권도를 포함한 운동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데, 향후 태권도와 같이 한국과 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신체활동 및 게임을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후로 과목별 현지 교사와의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활동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며, 향후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전체 프로그램(박문식 교수님)

린튼리더십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다녀온 태국 치앙라이 매쉬어이센터 재능학교 및 선교지 탐방은 크게 준비단계, 이동, 기독교관학교 교육활동, 방과 후 활동, 리더십 특강, 선교현장 탐방 등으로 이루어졌다.

### ①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2~3회의 전체 미팅과 각 과목별 팀 미팅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두가 물심의 양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그리고 각 팀 마다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루어졌다. 린튼리더십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선교적 측면보다는 태국활동과 탐방을 통한 개인적 성찰과 리더십 훈련에 더욱 집중코자 하였으며 상명하달식 프로그램의 전개보다는 스스로 그리고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목표와 태스크와 전략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으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과목별 팀으로 조직화하고 주임교사와 부장교사, 회계와 영상담당자를 정함으로서 자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혔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지 학교 및 학급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알려진 상태에서 막연함은 피할 수 없었으며 김장원 선교사님과의 연락을 취하면서도 이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의도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모든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고 현지 정보가 드러났으며 완벽한 태스크가 정해졌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긴장된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분위기는 리더십의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였다.

## ② 이동

이동은 교통수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 및 신체적 안전과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의 관리와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을 지키고 인원점검을 확실히 하며 건강 이슈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인천공항 이동편은 처음에는 대중교통(공항버스, 자부담)을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전세버스(공동예산 처리)로 결정하였다. 물론 훈련의 측면에서는 대중교통도 의미가 있으나 시간의 사용 및 안전의 확보의 유익이 현저하게 유리하므로 전세버스로 결정하였다. 인천공항에서는 그룹체크인을 하였는데 이 때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여러 명의 환전과 해외 유심카드 구매 등으로 40분가량이 소요되어서 급기야 항공기 보딩타임에 맞추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은 많은 혼잡으로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린다. 출국신고시에 벌써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딩타임이 지났음을 통보받고 급하게 뛰어서 간신히 승선하는 해프닝이 생겼다. 향후 단체 이동시 개별이동보다 약 40여분의 추가시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승선 후 타이항공편은 택시를 조금 하다가 멈추었는데 이후 비행기는 기체이상으로 다시 엠바킹하고 하선하였으며 항공사가 알려주기만을 바라며 기체수리를 기다려야 했다. 5시간 대기 후에 다시 탑승 및 이륙, 항해하여 중간 기착지 홍콩을 거쳐 방콕에 도착하였다. 심야에 도착하였기에 이어지는 국내 항공편은 없었고 항공사 제공으로 공항인근의 노보텔에서 1박을 하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편으로 방콕을 이륙하여 치앙마이에 착륙하니 김장원 선교사님 일행이 송태우 2대와 SUV 1대로 나누어 타고 치앙마이-치앙라이간 고속도로로 매썬어이센터까지 이동하였다. 전날 야간에 도착하였다면 람퐁센터에서 1박을 할 계획이었는데 항공기 연착으로 이 일정은 없어졌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인 매썬어이센터에는 제대로 도착하게 되었다.

재능학교를 하는 동안 중식은 외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니트럭을 이용한 이동이 빈번하였다. 중간에 온천에 간 것과, 산족마을에 갈 때, 그리고 미얀마와 골든트라이앵글을 탐방할 때도 육로이동이 있었다. 팀원들은 급속도로 친근해 졌고 프로그램도 무르익어 가고 있었으므로 아주 원기가 넘쳤는데 이 때가 안전의 측면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순간이다. 트럭칸에 올라탔을 때의 안전을 늘 감시하여야 한다. 기분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귀국하는 여정에서의 이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③ 기독교관학교 교육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는 본 보고서 전반부에 기록되었다. 교육은 계획대로 잘 맞아들어 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분반의 구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밤 점검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갔으며 언어소통의 문제 때문에 되도록 제스처 강화와 실천 참여형으로 맞추어 나갔다. 각 반마다 한 명씩 투입되는 통역교사(단기선교사 또는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교사)의 성향, 전공배경, 한국어 실력에 따라 수업의 진행이 매우 달라졌다. 또한 쉬는 시간과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더욱 친근해진 교사-교사, 교사-학생 등의 관계로 인해 다소 규율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번 팀은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특히 규율을 관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규율의 준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였다. 부장교사는 무척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을 관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중

에 달란트를 수여하였으며 발표회를 마친 날 저녁에 달란트 시장을 개최하였다. 상품은 모든 사람이 조금씩 준비해 간 학용품, 소품, 과자 등으로 채워졌으며 제대로 계획된 달란트 시장용 상품은 못되었기 때문에 품목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들 즐거워 하였다. 교육을 모두 마치고 금요일 밤에는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즐거운 가운데 곧 헤어지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기분이 고조된 상태였지만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준비해 간 청오카리나의 연주회는 LED의 빛과 함께 아름다움과 감사를 자아냈다. 채민우 교사의 피아노 독주회는 더욱 감동적이었다.

#### ④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활동은 몇 가지 준비된 것이 있었으나 현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축구, 배구, 그 밖의 자유활동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활동이 많았다. 특히 축구는 현지 학생들이 유니폼과 축구화를 갖추고 하는 등 매우 잘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은 배구를 할 때 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잘하였다. 나머지 학생들도 도란도란 모여서 이리저리한 놀이를 하였다. PC 조립 워크숍은 준비해 간 중고PC 3대(i3급)를 분해조립하는 활동이었으며 주로 남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를 위한 모든 사전준비와 교육은 금연중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맡아 주었다. 비즈팔찌 만들기 및 봉숭아 물들이기는 여학생을 위한 놀이로 준비해 갔으며 일부 남학생도 참여하였다. 최예은 교사와 백수림 교사가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봉숭아물들이기는 썩 잘되는 편이 아니었고 학교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을 알았다. 태권도품세활동은 표성민 교사가 준비해 갔으며 통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매우 잘 따라하였다. 호응이 좋았고 너무 짧은 시간밖에 안되었고 예전에 태권도 교사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유태의 교사가 준비한 물풍선놀이는 흥분과 즐거움의 결정판이었다. 마치 태국의 물 축제인 송크란인 듯 하였다. 매썬어이 센터와 인접한 공장 D Y Polymetal을 견학하였다. 태국 현지에 맞는 개량된 골판함석재 지붕을 만드는 공장인데 공과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현지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기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님의 서프라이즈의 하나로서 교육 셋째 날인가 인근의 천연온천으로 온천욕을 나갔다. 다들 신나는 외출이었고 인근 길거리 상가에 내려서 현지 음식과 균것질을 즐겼다.

#### ⑤ 리더십 특강

리더십 특강은 한남대 교사들과 기독교관학교 학생 및 단기선교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형태로 조식과 조회 후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한남대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조금 더 리더십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통역을 동반한 전체 특강이었기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김장원 선교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비전'에 관하여 인상 깊은 특강을 두 차례 해 주었고, 박문식 교수는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원주의 세계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3회, 조화진 교수는 '행복한 삶의 발견과 자기 계발'에 대해 2회를 실시하였다. 조화진 교수는 현지교사들이 겪는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돕도록 상담학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 제고와 상담적 해결을 위한 지도자 코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특강은 시와 선생님 주관으로 태국문화, 아카족 문화, 라후족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민속 공연을 병행하면서 3회 진행하였다. 조화진 교수는 기독교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교육 및 활동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⑥ 선교현장 탐방

매슈어이센터의 기독교학교는 기숙형 대안학교로서 정부의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대신 자유로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하며 때문에 센터에는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기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낙후된 산속들 출신이며 크게 아카족, 라후족, 카렌족들이 있다. 그 중에서 아카족 마을의 하나인 호웨이 킬렉의 교회로 탐방을 나갔다. 방문한 센터 소속의 교회는 설립시 주민들의 반대로 비탈이 심한 곳에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할 활동은 외부 페인트를 재도색하는 것과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해 주는 것이었다. 교회의 도색이 완성되자 아주 산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마을을 돌아보며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함께 놀아주고 준비해 간 선물도 주었다. 남자들은 교회에서, 여자들은 민박으로 1박을 하고 센터로 귀환하였다.

재능학교 교육일정을 모두 마치고 선교지 및 문화탐방을 나섰다. 국경도시인 미얀마의 타킬렉으로 입국하여 센터와 관련이 있는 고아원기숙사를 방문하였다. 그곳에 아이들은 39명 정도이며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숙형 선교시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저 방문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서로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해 주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을 위해 일찍 귀가하고 반갑게 맞이해 준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 다시 태국으로 귀환하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탐방하였다. 마약박물관을 거쳐 황금삼각주 전망대에서 저 강 건너 라오스를 보며 짧은 일정으로 인해 센터로 귀환에 나섰다. 저녁 식사는 치앙라이에서 하였으며 식후 치앙라이 나이트 바자에서 볼거리와 쇼핑을 즐겼다. 그리고 매슈어이 센터로 귀환하였다. 다음 날은 귀국을 위해 치앙마이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치앙마이 시내를 둘러볼 계획이다.

## ⑦ 귀국 후 정리

모두 무사히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1회의 애프터 모임이 있었다.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는 참가후기를 작성토록 하였고 주임교사와 부장교사에게는 주임 및 부장 리포트를 작성토록 하였다. 프로그램 전체보고서는 백수림 양에게 맡겼으며 교육분야 종합강평은 조화진 교수가, 전체 프로그램은 강평은 박문식 교수가 작성하였다. 리더십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동영상도 제작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 치앙라이 1 Intro <https://youtu.be/EJwTVkh9gPI>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 치앙라이 2 Main [https://youtu.be/sP4Ea\\_nYh1Q](https://youtu.be/sP4Ea_nYh1Q)

린튼리더쉽프로그램 태국 치앙라이 3 Retro [https://youtu.be/\\_SvjBab\\_WGg](https://youtu.be/_SvjBab_WGg)

2017 매슈어이 선교센터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https://youtu.be/iHXQiRNKxEY>

채민우 학생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박문식 교수와 상담을 거치고 김장원 선교사님과 협의하여 남은 방학을 활용하여 1주일간 재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번 린튼리더십프로그램 태국활동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을 특정하기 보다는 자기 인생을 살피면서 길을 묻고 찾아가는 방법으로 슬로건을 '치앙라이에서 길을 묻다'라고 설정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앙소그룹에서 동기를 얻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재능학교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등의 전체 과정은 암묵적으로 리더십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려진 상황 등을 경험함으로써 도전에 임할 줄 알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 다른 봉사프로그램 또는 선교 프로그램과는 달랐던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봉사위주 또는 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교육(재능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은 단기간 내에 얻는 것이 매우 많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며 현지에 필요한 봉사인가를 생각할 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야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김장원 선교사님)

다섯째, 교사(한남대)와 학생(기독교사관학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친근감과 호감과 서로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감정은 도시에서 자란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매우 이례적인 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성에 대한 경험은 새로운 인간관, 사회관, 종교관을 자아내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발전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10. 현지 시설 분석

### 1) 메썬어이 센터

메썬어이 선교센터는 교회, 사택, 기독교관학교, 공립학생기숙사, 현지교사 가족숙소, 단기선교사 훈련센터 등이 모두 기능하는 종합 선교기지이다. 기독교관학교에는 남학생 20명, 여학생 2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지교사 16명, 단기선교사 약 10여명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공립학생 기숙사에도 약 4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센터 입구에는 여러 선교팀을 맞아 운영할 수 있는 숙소 및 강의실용 건물동이 별도로 있으며 전체 수용인원이 100명이 넘어도 무리가 없이 잘 운영되는 종합센터라고 할 수 있다. 한남대 재능교육 진행 중에도 새문안교회 단기 의료선교팀 3~40명이 센터에서 지내며 주변 의료활동이 진행되었다. 센터 부지 한 켠에 지어진 D. W. 폴리메탈도 선교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공장이다. 산쪽에 흩어져 있는 20여(?) 교회도 센터에 속해 있으며 현지인 교역자가 있고 선교사님은 순회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터의 당면한 과제는 현지인 지도자의 육성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교와 센터의 운영 등에 있어서 협동조합 형태 등과 같은 경영전문성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교실은 소그룹 교육에 매우 적합한 형태이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였다. PC실은 따로 있으나 약 18대의 컴퓨터가 사양이 너무 떨어져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고 한다. 수 년 전에는 태권도 교사도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재능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생들의 반응에 의하면 수학, 과학 등은 어려워하고 언어나 음악등은 좋아한다.

센터의 부지와 강의실은 매우 훌륭하나 복사기, 프로젝터 등 장비는 노후화 되어 있었다. 자체 예산에 의해 교체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후원에 의존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놀이 시설로는 농구대가 다 찌그러져 있어 새 농구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시와 선생님을 통해 알아 본 농구대의 현지가격 정보는 아래 사진과 같다.



약 20,000바트(70만원)



약 30,000바트(100만원)

그 외 노후화가 심한 기자재로는 복사기와 빔 프로젝터 등이 있다.

## 2)D.W. Polymetal

선교를 돕고 현지에 적합한 함석골판지붕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 제조 장비는 한국에서 도입하였음.



### 3)호웨이 킬렉 교회

이번에 방문하여 외부 페인팅을 하였으나 출입구 처마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추가적인 개보수 작업이 필요함. 최근에 교육관을 넓게 지었음.



### 3)미얀마 타킬렉 고아기숙사

헌신적인 현지사역 전도사님과 매수어이 센터와의 아름다운 연결 계기를 듣게 되었음. 기숙사 시설, 주방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음.





# 부록. 참고자료 및 표

## 1) 태국지도



2) 교육용 준비물 구매내역

구분	항목	단가	수량	가격	
공통	멀티탭(5M)	16,550	2	33,100	
	화장지(30EA)	8,450	1	8,450	
	물티슈	1,000	5	5,000	
	명찰	120	80	9,600	
	공책	400	100	40,000	
	연필	2,200	8	17,600	
	지우개	190	50	9,500	
	연필깎이(1)	9,250	1	9,250	
	연필깎이(2)	3,000	5	15,000	
	스카치테잎	660	2	1,320	
	색연필	2,400	3	7,200	
	싸인펜	2,000	2	4,000	
	가위	650	5	3,250	
	풀	390	5	1,950	
	스테인플러	2,900	1	2,900	
	스테인플러 심	900	1	900	
	박스 테잎	1,000	2	2,000	
	전기 절연 테잎	300	1	300	
	스티커(1)	650	1	650	
	스티커(2)	650	1	650	
	물풍선	9,750	1	9,750	
	택시(짐 옮기기 위한)	9,800	1	9,800	
	공항에서 테이프	4,000	1	4,000	
	소계				196,170
	수학	할리갈리	18,300	2	36,600
		간식	39,700	1	39,700
		모눈종이	5,000	1	5,000
각도기		1,000	10	10,000	
출력		8,700	1	8,700	
소계					100,000
한글		붓펜	12,000	1	12,000
	부채 한지(조개)	1,000	50	50,000	
	간식	45,800	1	45,800	
	기타(다이소)	3,000	1	3,000	
	축구공	7,800	2	15,600	
	탱탱볼	800	2	1,600	
	미니펌프	5,880	1	5,880	
	소계				133,880
	영어	색지	1,200	2	2,400
네임펜		700	1	700	
제본		82,000	1	82,000	
봉숭아		1,000	30	30,000	
싸인펜		4,000	1	4,000	
간식		22,000	1	22,000	
소계					141,100

과 학	건전지	1,000	1	1,000
	자석	5,900	2	11,800
	구리선	10,000	1	10,000
	출력	15,000	1	15,000
	지퍼팩	2,000	1	2,000
	간식	24,040	1	24,040
	소 계			63,840
음 악	출력	14,100	1	14,100
	소 계			14,100
<b>총 합 산</b>				
입금	박문식 교수님 (1월 18일)	600,000	1	600,000
	박문식 교수님 (1월 21일)	150,000	1	150,000
	소 계			750,000
출금	공통	192,170	1	196,170
	수학팀	91,300	1	100,000
	한글팀	133,880	1	133,880
	영어팀	141,100	1	141,100
	과학팀	63,840	1	63,840
	음악팀	14,100	1	14,100
	소 계			649,090
	박준 자료집			100,910
	잔액			0

### 3) 현지예산 지출내역

2017 LLP 태국 치앙...		All	Cash Only	Card Only
January 17, 2017				
		<b>₩200,000</b>	LED 청오카리나 20개	
<b>A</b>	All			
23	Jan	<b>₩183,040</b>	클라이언트투어 여행자보험...	
24	Jan	<b>₩124,170</b>	Etc.	
January 18, 2017				
26	Jan	<b>₩600,000</b>	수업재료준비금 천승우 송금	
January 18, 2017				
<b>A</b>	All	<b>₩730,000</b>	공항전세버스 왕복예약	
January 19, 2017				
23	Jan	<b>₩10,400,000</b>	현지 프로그램터 총액 매수어...	
24	Jan	<b>₩1,000,000</b>	가이드 및 통역비 김장원 선...	
26	Jan	<b>₩797,152</b>	에비비 환전 23,200THB	
January 21, 2017				
<b>A</b>	All	<b>₩91,700</b>	라면, 김, 아침식사거리	
23	Jan	<b>₩150,000</b>	교보재 준비물 추가	
January 25, 2017				
25	Jan	<b>₩0</b>	아이스크림 30개	
January 26, 2017				
26	Jan	<b>₩0</b>	세탁기 코인 구매	
January 29, 2017				
<b>A</b>	All	<b>₩0</b>	주말 현금	
January 31, 2017				
23	Jan	<b>₩0</b>	현지교사 식사대접 16+5	
25	Jan	<b>₩0</b>	귀국선물	
February 1, 2017				
26	Jan	<b>₩0</b>	담당 현지교사 사례비	
February 1, 2017				
<b>A</b>	All	<b>₩0</b>	미안마 기념품	
23	Jan	<b>₩0</b>	아이스 하드	
24	Jan	<b>₩0</b>	치앙라이 나잇바자 지급	
26	Jan	<b>₩0</b>	나잇 바자 쇼핑	
February 2, 2017				
<b>A</b>	All	<b>₩0</b>	과일주스 110	
23	Jan	<b>₩0</b>	방콕 저녁식비지급	
February 3, 2017				
25	Jan	<b>₩105,000</b>	도착조식	
February 16, 2017				
26	Jan	<b>₩301,000</b>	단체 티셔츠 22	
February 21, 2017				
<b>A</b>	All	<b>₩176,500</b>	애프터미팅 금수강산	
April 5, 2017				
23	Jan	<b>₩300,000</b>	보고서 영상 제작비	
25	Jan	<b>₩111,438</b>	키티폼 지도자 미팅	
Summary				
28	Jan	<b>Spending</b>	<b>₩15,270,000</b>	<b>Balance</b>
				<b>₩0</b>